

미국 은행 신용등급 강등 코멘트

3사 가운데 가장 유연했던 S&P의 평정

Analyst 김준수 02)768-7784, junsoo.kim@nhqv.com

S&P까지 글로벌 신용평가 3사 모두 미국 은행에 대한 코멘트 및 레이팅

8/21일 S&P는 10개의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며, S&P를 마지막으로 글로벌 신용평가 3사 모두 2분기 실적을 반영한 코멘트 및 레이팅 액션을 단행했음

S&P는 Associated Banc Corp 등 5개 지역 은행에 대해 기존의 신용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으며, River City Bank와 S&T Bank의 등급 전망을 하향, Zion Bancorp 등 3개 은행의 등급 및 등급 전망을 현행 유지했음. 평정 논거는 1)자금 조달 어려움 및 조달 비용 증가, 2)보유 증권의 미실현 평가 손실에 따른 자본적정성 저하, 3)오피스 중심의 CRE 대출 자산 부실화 우려로, 앞서 신용등급 및 전망을 대거 하향 조정한 Moody's와 동일한 평정 논거를 적용

3사 가운데 가장 유연했던 S&P의 평정, 유효 등급 하락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미

평정 논거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등급 조정에 반영될 핵심 신용 지표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 은행업이 당면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신용평가 3사 모두 유사했음.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일부 차이가 존재. Moody's는 27개 은행에 대한 레이팅 액션을 단행했고, Fitch는 70개 이상 은행에 대한 대규모 검토를 통해 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급. 반면 S&P는 7개 은행 하향 조정에 그쳤으며, 평정 보고서에서도 약 90%의 은행들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Most U.S. Bank Rating Outlooks Are Stable)이라고 진단하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평정 기조를 보임

현재 미국 은행 신용등급은 신용평가 3사 가운데 S&P의 등급이 평균적으로 1~2-notch 낮게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크레딧 시장 내 은행들의 유효 등급은 대부분 S&P의 등급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S&P의 평정이 유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음

향후 추가 등급 조정 가능성 존재하나 개별 은행 조정에 그칠 것, 레이팅 민감도는 점차 둔화될 전망

당사 보고서 'NH Credit Weekly - S&P의 평정 기조 점검(23.08.21)'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S&P는 미국 은행 산업에 대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며 비교적 중립에 가까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을 제외한다면 대규모 강등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함. Moody's는 최근 평정에서 하향 검토 의견을 통해 3~6개월 내 추가 강등을 시사한 가운데 Fitch 또한 강등을 예고하고 있으나, S&P는 향후 실적 방향 및 신용 지표 둔화 여부에 따라 개별 은행 조정에 그칠 것

최근 연이은 미국 은행 평정이 자산시장 내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으며, 은행권 유동성 경색 확산 및 이벤트 발생 당시인 2분기 실적이 반영된 평정인 만큼 하향 우위 기조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다만 크레딧 스프레드의 변동폭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예금 기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또한 불안 요소들은 결국 일부 중소형 및 지역 은행에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미국 은행 레이팅에 대한 시장 민감도 역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